

みんなくり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残された課題：「植民地時代」の扱いをめぐって

メタデータ	言語: Japanese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浮葉, 正親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s://doi.org/10.15021/00002230

残された課題：「植民地時代」の扱いをめぐって

浮葉正親（名古屋大学）

先日（3月17～18日）、国立民族学博物館で開催された「日本における韓国文化の表象」というシンポジウムに参加するという貴重な機会を得た。韓国から招かれたゲストの方々のお顔を拝見し、まず考えたのは、もし逆の立場だったら、つまり「韓国における日本文化の表象」というシンポジウムに呼ばれ、展示された「日本文化」の数々に対して何かコメントをと言われたら、やはり困惑を隠せないだろうなということだった。外国人の研究者の目に映る<異文化>としての自文化、それを表象するモノたちを前にしてどのようなスタンスで感想を表明し得るだろうか。違和感を感じることは確かであるが、何がどう「違う」のか、またどこが「欠けている」のか。研究者としての論理的な説明よりも、「もっといいものがあるのに、なぜこれが展示されているのか」というレベルの「無いものねだり」をしてしまいそうである。

予想通り、「酒幕の屋根がなぜ銅板なのか」、「濟州島の民家の模型が中央に置かれているが、これが韓国の民家を代表するものなのか」、「展示が宗教生活に片寄り過ぎている」などという質問やコメントが出された。これらにホスト役の朝倉敏夫氏が一つ一つ丁寧に答えていく。というよりも、今回のリニューアルの限界や問題点については、朝倉氏自身が誰よりも自覚しているはずである。傍目には朝倉氏に対する聴聞会のように見えるシンポジウムの進行は、入念に準備されたもののように思われた

（ただ日本側のゲストが朝倉氏にあまり助け船を出さないのは少し意外だった）。韓国側のゲストはいずれも韓国を代表する博物館の責任者であり、第一線の研究者である。限られたスペースのなかで自らの研究成果を集約して展示することの難しさを熟知している。少なくとも「揚げ足を取る」ような質問は一つもなく、日本側の投げたボールを真剣に受け止めようとする誠実な姿勢が印象的であった。シンポジウムのなかでは、韓国における博物館展示の問題点（たとえば「遺物」「文化財」の展示が中心で、現代の展示がタブー視されていること）も吐露され、博物館のありかたをめぐる諸問題が活発に議論された。運営者中心の博物館をどうやったら利用者中心の博物館にシフト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博物館の交流的機能をどのように促進していったらいいのかという普遍的な問題も議論され、第1日目の討議は大いに盛り上がった。

남은 과제 : 「식민지 시대」의 처리를 둘러싸고

浮葉正親 (名古屋大學)

국립민족학박물관에서 개최(3월 17일-18일)된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문화의 표상」이라는 심포지움에 참가한 것은 귀중한 기회였다. 한국으로부터 초빙된 게스트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선 생각한 것은, 만약 반대의 입장이었다면, 즉 「한국에 있어 일본문화의 표상」이라는 심포지움이라면, 전시된 「일본문화」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약간의 코멘트를 부탁받는다면, 아무래도 곤혹함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외국인 연구자의 눈에 비친 “異文化”로서의 自文化, 그것을 표상으로 하는 것들을 앞에 두고 어떠한 입장에서 감상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인가?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확실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틀리다」, 또는 어디가 「결여되어 있다」는 연구자로서의 이론적 설명보다는 「더욱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이 전시되어 있는가?」하는 수준의 「없는 것 조르기」를 할 것이다.

예상대로 「주막의 지붕이 왜 동판인가?」, 「제주도의 민가의 모형이 중앙에 위치해 있지만, 제주도가 한국의 민가를 대표하는 것인가?」, 「전시가 지나치게 종교생활에 편중되어 있다」 등의 질문과 코멘트가 나왔다. 이것들에 대해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朝倉가 하나 하나 정중하게 답변했다. 누구보다도 지난회의 재단장(renewal)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朝倉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옆에서 지켜보기에 朝倉에 대한 청문회처럼 보이는 심포지움의 진행은 잘 준비된 것처럼 생각되었다(그러나 일본측의 게스트가 朝倉에게 그다지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조금 의외였다). 한국측의 게스트는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의 책임자이고, 제일선의 연구자이다. 제한된 공간 가운데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집약해 전시하는 것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말꼬리를 잡는」 것 같은 질문은 전혀 없이, 일본측이 던진 공을 진검으로 막아내려고 하는 성실한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심포지움 가운데에는 한국에 있어서 박물관 전시의 문제점(예를 들어 「유물」, 「문화재」의 전시가 중심이 되고, 현대의 전시가 금기시되고 있는 것)도 토론되었고, 박물관의 존재방식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활

問題は第2日目の討議である。この日は今回のリニューアルに際して残された課題として提示された、〈植民地時代の展示〉と〈海外コリアンの展示〉という二つのテーマが議論された。しかし、結果的にこの日の議論は前日ほどの盛り上がりを見せなかった。その理由として考えられるのは、この二つのテーマが研究者同士の関係に収まり切らない、日韓両国の歴史や政治的な背景と深く関わるものだからである。

まず、〈植民地時代の展示〉についてであるが、このテーマを「韓国における日本文化」という別の言葉で置き換えようとしたことに対する韓国側の反発である。日本側が「植民地」という言葉を避けたのは、「民博の展示としては、植民地時代の功罪を問おうとするものではなく、生活文化を通して、この時代を考察できるような展示が望ましいと考え」[シンポジウム抄録：p. 19]だからだという。日本側としては、そのような展示をあえて行うことで、その時代の日韓の文化交流に関する研究を進めていく突破口を開こうという意図があるように思われる。ところが、そのような置き換えこそが過去の歴史を隠蔽しようとするものと誤解されかねないと同時に、終戦／解放後半世紀が過ぎたこの時点で、韓国に今なお残る植民地時代の遺産に対して、改めて「日本文化」というレッテルを貼りつけることの政治性が等閑視されているのである。確かに現在の韓国生活文化には「日本」を意識させるものが少なくない。新聞社や土建業界の専門用語をはじめとして、学校や軍隊制度、農具や歌謡曲など、あらゆる分野に植民地時代（ばかりか現代の日本経済の影響力）の刻印を見ることができる。ただ、それらについても過去50年の歳月のなかで韓国人の肌に合うものは残され、韓国化されてきてい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植民地主義人類学の視角でより深い議論を重ねたうえで展示を検討した方がよいという韓国側の全京秀氏のコメントは問題の本質を正鵠に指摘したものだと思われた。この問題は、中生勝美氏が盛んに指摘している、日本の人類学と植民地との関係という問題とも関わっており、とりわけ韓国をフィールドとする研究者に突きつけられた大きな問題だといえる。今後、韓国の研究者とのより活発な共同作業が不可欠な領域だと思われる。

次に、〈海外コリアンの展示〉というテーマについてであるが、これも植民地時代の歴史と無関係でないことが韓国側のゲストに指摘された。中国でも、ロシアでも、コリアンにインタビューする度にまず言及されるのは、日本人が自分たちに何をやったのかということであるという。83年の展示でも、今回の展示でも、民族の分断という現実がまったく触れられていないという韓国側の指摘は、まさに日本側の急所を突いたものと思われた。「海外」のコリアンの展示以前に、日本のコリアンの展示が行

발히 논의되었다. 운영중심의 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으로 변혁시킬 수 있을까, 박물관의 교류기능을 어떻게 촉진시키면 좋을가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도 논의되는 등, 첫날 토론의 분위기는 대단히 고조되었다.

문제는 이틀째의 토론이었다. 그날은 이번 재단장(renewal)에 한해 남아 있는 문제로 지적되었던 「식민지 시대의 전시」와 「해외한국인의 전시」라는 두 개의 테마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날의 논의에서 전날 정도의 분위기 고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 두 개의 테마가 연구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매듭지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닌, 한일 양국의 역사와 정치적 배경과 깊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식민지 시대의 전시」에 관해 살펴보면, 이 테마를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문화」라는 다른 제목으로 변경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한국측의 반발이었다. 일본측이 「식민지」라는 단어를 피했던 것은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전시로써는 식민지 시대의 공죄를 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문화를 통해서 그 시대를 고찰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심포지움 초록: p.19]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측이 그러한 전시를 굳이 실행한 것은 그 시대의 한일의 문화교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이야말로 과거의 역사를 은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해될 지도 모름과 동시에 전후 해방후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지금 다시 한국에 남은 식민시대의 유산에 대해 새삼스럽게 일본문화라는 상표를 붙이는 것이야말로 정치성을 등한시하는 것이다. 확실히 현재의 한국생활문화에는 일본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적지 않다. 신문사나 토목업계의 전문 용어를 시작으로 해서 학교나 군대제도, 농기구나 가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식민지 시대(그 뿐만 아니라 일본경제의 영향력)의 각인을 볼 수 있다. 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과거 50년의 세월 속에서 한국인의 취향에 맞는 것이 남아, 한국화되어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식민지주의 인류학의 시각에서 보다 깊은 논의를 쌓은 후에 전시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한국측의 全京秀의 코멘트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中生勝美가 맹렬히 지적하고 있는 일본의 인류학과 식민지와의 관계라는 문

われていない現状を鋭く指摘したからである。「檀君の肖像画の横になぜ金日成の肖像画がないのか」という韓国側の指摘は、「日本でならそれができるのになぜやらないのか」という期待の裏返しでもあった。在日コリアン、とくに朝鮮総連系のコリアンの生活文化に対する研究というテーマも韓国側から投げ帰された重いボールだったと思う。

今回のシンポジウムに参加して改めて感じたのは、朝鮮半島の文化を<異文化>として表象することの難しさであった。他の地域に比べ、朝鮮半島と日本はあまりにも近く、互いに深く関わり合ってきた歴史がある。朝鮮半島の文化を研究することは、日本人が意識しない、あるいはあえて見ようとしなない、もう一つの日本人の顔に直面せざるを得ない作業だといえる。その意味で、韓国における韓国研究者ばかりでなく、韓国における日本研究者との連携作業も必要な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日本人として、人類学者として、韓国研究者として、単なる地域研究というレベルを越えて、「韓国における日本文化の表象」といかに向かい合っていくのかという問題についても、これからもっと議論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られる。

両国の研究者に課せられた問題は数多くあり、韓国の諺で言えば、「山を越えたら、また山があった」という状況であることが今回のシンポジウムでは改めて浮き彫りになった。それでも、半世紀という長い時間の経過のなかで、両国の研究がそれぞれの文脈で成熟し、その成果が対話を可能にする水準に達したこと、共同研究の新たな端緒は開かれ、ともに手を携えて山を越えようという意志が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点で、今回のシンポジウムは実に実りあるものだったといえる。

제와도 관계가 있고, 특히 한국을 조사대상지로 삼는 연구자들이 부딪치는 중요하고도 크나큰 문제와 연관된다.

다음의 「해외한국인의 전시」라는 테마에 대해 언급하면, 이것도 식민지 시대의 역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측의 게스트로부터 지적되었다.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한국인과 인터뷰 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일본인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했었는가라는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83년의 전시에서도 이번의 전시에서도, 민족의 분단이라는 현실이 결코 언급되지 않았다는 한국측의 지적은 더욱 더 일본측의 급소를 찔렀다고 생각된다. 「해외한국인의 전시」 이전에 일본내 한국인의 전시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군의 초상화 옆에 왜 김일성의 초상화가 없는가」라는 한국측의 지적은 「일본에서라면 그것이 가능한데 왜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의 어긋남이기도 했다. 재일한국인, 특히 조총련계의 한국인의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라는 테마도 한국측에서 던진 무거운 공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심포지움에 참가하여 심히 느낀 것은, 한반도 문화를 〈異文化〉로써 표상하는 것의 어려움이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한반도와 일본은 너무 가깝고 서로간에 깊게 관계를 맺어온 역사가 있다. 한반도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일본인이 의식하지 않는 혹은 아예 보려고 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일본인의 얼굴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의미에서 한국의 한국연구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일본연구자와의 연계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일본인으로써, 인류학자로써, 한국연구자로써, 단순한 지역연구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국에서의 일본 문화의 표상」과 어떻게 대면해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더욱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의 연구자에게 부과된 문제는 매우 많고, 한국의 속담으로 치면 「산을 넘으니, 또 산이 있다」라는 상황인 것이, 이번의 심포지움에서는 깊게 새겨졌다. 그렇지만, 반세기라는 긴 시간의 경과한 가운데, 양국의 연구자 각각의 문맥에서 성숙하여 그 성과가 대화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점, 공동연구의 새로운 단서가 열림과 함께 손을 잡고 산을 넘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의 심포지움은 매우 값진 것이었다.